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여대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하위군집에 따른  
진로관련 변인에서의 차이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최 진 희

여대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하위군집에 따른  
진로관련 변인에서의 차이

이 정 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최 진 희

# 인 준 서

최진희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의 하위군집을 도출하여 이들의 특성을 기술하고, 군집별로 진로관련 심리적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성 405명에게 여대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진로장벽 검사(CBI: Career Barriers Inventory), 진로결정검사(CDS: Career Decision Scale), CDMSE단축형(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SF), 진로준비행동검사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362명의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차별,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 특성의 부족, 다중 역할 갈등,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토대로 계층적 군집분석과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군집유형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군집은 ‘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으로 진로가 명확하지 않았고, 개인내적인 특성의 부족과 함께 선배나 동문의 존재 및 사회적인 여건과 경제상황 등 외적요인들의 어려움을 지각하였다. 두 번째 군집은 ‘진로 미결정-성적제약 미지각형’으로 중간정도의 진로장벽을 지각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진로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극복할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거의 지각하지 않는 집단이었다. 세 번째 군집은 ‘진로장벽 저지각형’으로 진로장벽을 가장 낮게 지각하였으며 비교적 적응적인 집단이었다. 네 번째 군집은 ‘진로장벽 고지각형’으로 높은 수준의 진로장벽을 지각하였으며, 특히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군집은 차별과 다중 역할 갈등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하였으며, 여성으로

서의 한계를 주로 지각하였기에 ‘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군집유형에 따른 진로관련 변인에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 저지각형’에서 가장 높았으며, ‘진로장벽 고지각형’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장벽 저지각형’이 가장 높았으며, ‘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이 가장 낮았다. 이 같은 결과는 진로장벽의 하위군집유형에 따라 진로관련 변인에서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진로상담에 있어 개인차를 고려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진로장벽,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 목 차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6
<b>II. 이론적 배경</b> .....	7
1. 여대생과 진로 .....	7
2. 진로장벽 .....	9
1) 진로장벽의 정의 및 특성 .....	9
2) 진로장벽의 분류 및 하위요인 .....	11
3.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 .....	13
4.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14
5.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	16
<b>III. 연구방법</b> .....	19
1. 연구대상 및 절차 .....	19
2. 측정도구 .....	22
1) 진로장벽 .....	22
2) 진로결정수준 .....	23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24
4) 진로준비행동 .....	25
5) 인구통계학적 설문지 .....	25
3. 자료분석 .....	26

<b>IV. 연구결과</b> .....	27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 및 평균과 표준편차 .....	27
2. 진로장벽에 따른 군집유형 .....	31
3. 군집유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 .....	35
4. 군집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에서의 차이 .....	41
<b>V. 논의</b> .....	47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21
<표 2> 진로장벽척도 검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3
<표 3>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4
<표 4>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 및 평균, 표준편차 .....	30
<표 5> 군집화 일정표 .....	31
<표 6> 최종 군집별 중심점 .....	32
<표 7> 군집유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차이 .....	37
<표 8> 군집유형별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차이검증 ·	41

## 그림 목차

[그림 1]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에 따른 여대생 집단의 군집유형 .....	34
[그림 2] 군집유형에 따른 학교유형2(학제) 차이 .....	40
[그림 3] 군집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 차이 .....	40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이는 청소년 후기의 발달과업에 해당한다(Cohen & Ainkey, 2000). 이 과정에서 자신과 진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는 단계는 대학생이 직업세계로 이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다(구정화, 2008; 김민정, 김봉환, 2014).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일괄적인 입시풍토로 인해 신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지 못 하고,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고미나, 2011; 손은령, 손진희, 2005; 신윤정, 2013; Swanson & Tokar, 1991).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학생은 진로관련 경험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의 진로문제는 90년대 IMF이후 청년실업 문제와 맞물려 지속적인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5; 정승헌, 김금미, 2010; 통계청, 2015; 한덕웅, 1994; 한덕웅, 강혜자, 2000; 한덕웅, 최훈석, 2006).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탐색과 진로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이다(Swanson, Daniel & Tokar, 1996; Swanson & Tokar, 1991).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대학생은 진로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고, 진로발달,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포부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손은령, 손진희, 2005; 이상희, 2005; 이상희, 2006; 이현림, 김순미, 천미숙, 최숙경, 2008). 따라서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주며, 취업에 임박한 대학생들은 이를 더 크게 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여대생들은 여성이 겪는 진로의 특수성 때문에 진로장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추론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대생들은 성적차별과 제한된 기회를 진로장벽으로 지각하였는데(Swanson & Tokar, 1991), 이는 여성들이 기존의 성역할로 인한 갈등을 겪으며 제한된 구직활동과 기회를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Fitzgerald & Crites, 1980; O'Brien & Fassinger, 1993; Swanson & Tokar, 1991). 실제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의 정규직 인구는 72.4%로 정규직 여성 인구인 56.4%보다 높으며, 여성은 임시직과 일용직 인구가 43.6%로 남성의 임시직과 일용직 인구인 27.6%보다 더 높다(통계청, 2016).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의 직장생활이 남성들과 비교하여 안정적이지 않으며,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될 여대생에게도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은영, 2001; 손은령, 2001).

특히 여대생이 속한 학교유형과 환경 및 인종에 따라 지각한 진로장벽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강정은, 2008; 정홍원, 2002; Lent et al., 2002; Lopez & Ann-Yi, 2006), 이는 진로장벽이 개인의 성향과 환경에 따라 달리 지각될 수 있으며, 여대생이라는 집단이 동질적인 성별을 가지고 있지만 지각하는 진로장벽에서 개인차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진로문제에 보다 효과적인 개입을 위하여,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개인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선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전의 연구들은 진로장벽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특성불안 및 진로준비행동 등 주로 진로와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밝혀내거나(박용두, 이기학, 2007; 손은령, 2002; 오은주, 2014; 유나현, 이기학, 2009; 이상희, 2006; Gushue, et al., 2006), 성별과 학년 및 학교형태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진로관련변인들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강정은, 2008; 손은령, 손진희, 2005; 이성식, 정철

영, 2007; 정홍원, 2002; Lent et al., 2002; Lopez & Ann-Yi, 2006). 이와 같이 변인중심(variable-centered) 분석법을 사용한 연구들은 변인간의 관계성을 통하여 진로장벽 개입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집단 간 진로관련 변인의 차이를 통하여 하위 집단의 진로상태 및 특성을 알아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나(Barnard-Brak & Lan, 2010), 실제로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개인들에게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다(강정은, 2008; 고미나, 2011; 박용두, 이기학, 2007; 이동혁, 2011; 천석준, 이기학, 2008). 군집분석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인중심(person-centered) 분석법의 대표적인 방법인데(이정윤, 2014; Barnard-Brak & Lan, 2010), 기존에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집단 안에서 어떠한 하위군집이 도출되는지를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강혜순, 2015; 김은희, 김봉환, 2010a; 박종욱,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을 기초로 여대생의 군집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을 정의하고, 실제 군집유형별로 진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심리적인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여대생이기 때문에 손은령(2001)이 개발한 여대생 진로장벽검사의 하위요인들을 군집측정치로 사용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를 통해 진로장벽의 하위변인들과의 관련성이 나타났고, 집단별 특징을 나타내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이 하위군집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먼저, 진로결정은 개인에게 있어 진로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현재 상태 이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뜻한다(고향자, 1992; Crites, 1969).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결정수준은 진로장벽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정욱, 2011), 특히 진로장벽 중 ‘차별과 편견’, ‘계약과 낮은 기대’,

‘개인의 능력부족’을 비롯한 내적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물리적 제약’, ‘사회적 영향’, ‘차별대우’를 포함한 외적진로장벽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미나, 2011; 박미경, 김영숙, 이현림, 2008). 따라서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내용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을 진로에 적용시킨 개념으로, 개인이 진로관련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동기를 유발시키는 본인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말한다(Bandura, 1977; Hackett & Betz, 1981; Lent, Brown & Hackett, 1994).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장벽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희, 2006; 이순희, 손은령, 2013). 또한 김선중(2005)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성격문제와 정보부족, 흥미부족문제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여학생은 능력 부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에 기초하여 하위유형을 도출할 경우, 심리내적인 장벽을 주로 지각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과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모든 노력을 말한다(김봉환, 1997).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적인 변인(성, 학년, 불안, 내외통제성) 및 맥락적인 변인(진로장벽)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그 중 진로장벽은 맥락적 변인으로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손은령, 손진희, 2005).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대생이 지각한 자신의 성격문제, 직업사회에 관한 정보부족 등 내적인 심리과정을 나타내는 진로장벽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신체적 열등과 부모와의 갈등과 같이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요인들은 오히려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한다고 나타났다(김

선중, 2005). 따라서 여대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내용에 따라 진로준비행동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앞에서 밝힌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함께 살펴볼 경우 개인의 진로상태에 대해 보다 풍부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진로장벽이라는 개념적 정의 안에는 다양한 하위요인들이 존재하며, 개인의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이들을 지각하는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관련성에 근거하여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장벽의 하위군집에 따라 다른 수준을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차별,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 특성의 부족, 다중 역할 갈등,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에 기초하여 여대생이 어떠한 군집으로 나누어지는지 살펴보고, 군집별로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진로장벽의 하위유형에 따라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손은령(2001)이 제작한 여대생 진로장벽 척도의 하위요인들(차별,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 특성의 부족, 다중 역할 갈등,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기초로 실제 여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어떠한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각 집단이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여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에 따른 하위군집이 존재하는가?

가설1. 여대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7가지 하위요인(차별,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 특성의 부족, 다중 역할 갈등,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군집이 도출될 것이다.

[연구문제2] 여대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에 기초한 군집유형에 따라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인가?

가설1. 군집유형별로 진로결정수준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2. 군집유형별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3. 군집유형별로 진로준비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여대생과 진로

구직활동과 취업은 청소년 후기 발달과업에 해당하며,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발달과업이기도 하다(전상진, 정주훈, 2006; 최상진, 김양하, 황인숙, 2004; 한준상, 1999; Cohen & Alinkey, 2000). 특히 여대생이 직업선택이나 취업과정에서 남성과 다른 장벽을 경험하며, 이는 여대생이 여성으로서 부과된 전통적인 성 역할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 기회를 제한받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Fitzgerald & Crites, 1980; O'Brien & Fassinger, 1993; Swanson & Tokar, 1991). 구체적으로 여대생은 대학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는데 있어 전공선택을 비롯한 개인적 어려움과 함께, 여성의 전통적 역할인 결혼 및 육아에 따른 어려움으로 직장의 보수, 지위, 근무시간 등 더 많은 조건을 고려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여성은 전 생애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직업설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구정화, 2008), 이는 여성의 진로결정과 구체적 행동의 지연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자대학생은 승진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본인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 보고한 반면, 여대생은 육아 및 가사노동과 회사업무 사이에 갈등문제 및 수입과 승진기회에 있어서 성차별 등의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지각하였다(Swanson & Tokar, 1991). 국내에서도 여대생이 남녀차별과 양육 및 결혼생활의 병행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포함하는 '직업환경의 제약'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보연, 2010).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한 현재에도 여전히 전통적인 성 역할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 난제로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며, 장차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여대생에게도 어려움으로 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대생들은 진로결정수준이

남자대학생들보다는 낮았으나, 진로준비행동은 오히려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손은령, 손진희, 2005), 이는 활동지향적이나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체감이 낮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김봉환, 김계현, 1997). 이에 따라 여대생들이 남자대학생들보다 대학생활 적응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으며(박신영, 이동형, 2013),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진로활동은 매우 복잡하고 고유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대생은 개인이 경험하는 교육환경이나 인종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진로장벽을 지각한다(강정은, 2008; 이성식, 정철영, 2007; 정홍원, 2002; Lopez & Ann-Yi, 2006). 이는 여성집단이 진로장벽을 지각하는데 있어 동질집단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며, 진로장벽에 대해 선별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강정은, 2008; 김봉환, 1997; 정홍원, 2002; McWhirter, 1997). 진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남녀의 차이를 밝히는데 많은 기여를 했으나(김선중, 2005), 진로에 있어서 전통적 역할의 특수성과 개인차를 보이는 여성집단에 대한 하위유형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다수의 척도가 남녀모두를 대상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아(김은영, 2001; Tak & Lee, 2003), 여성의 사회적인 성 역할에 따른 진로장벽을 측정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이 겪는 진로장벽의 특수성과 진로장벽에 따른 차별적 개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의 진로활동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될 것이다.

## 2. 진로장벽

### 1) 진로장벽의 정의 및 특성

진로장벽은 개인이 진로활동을 경험하는데 방해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모든 요인을 포함하며(Swanson & Daniel, 1996), Crites(1969)에 의해 언급된 이후 1970년대부터 그 개념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초기 학자들은 진로장벽을 개인 내적·외적 장애 혹은 심리학적·사회학적 장애라는 보편적이며 이분법적인 분류법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였다(Crites, 1969; Farmer, 1976; O'Leary, Virginia, 1974). 이후 다양한 진로장벽을 단순하게 분류하기 어렵다고 느낀 학자들은 다원적으로 진로장벽의 개념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Swanson과 그의 동료들(1996)은 진로장벽을 자신감의 부족, 비전통적인 진로선택에서의 좌절, 의사결정의 어려움, 성차별, 인종차별을 포함한 1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 진로장벽척도를 제작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손은령(2001)이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포함한 7가지 하위요인으로, 김은영(2001)은 '신체적 열등감,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포함한 9가지 하위요인으로 진로장벽의 개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진로활동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진로장벽을 포괄적으로 보고자 하는 학자들의 관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대학생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했고, 진로발달과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효능감이 낮았으며, 진로결정수준, 진로포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손은령, 손진희, 2005; 이상희, 2005; 이상희, 2006; 이현림, 김순미, 천미숙, 최숙경, 2008; Lent et al., 2002; Lopez & Ann-Yi, 2006). 또한 진로장벽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유나현, 이기학, 2009), 개인이 외적통제를 사용하며 특성불안이 높고, 진로결정수준과 낙관성 및 강인성이

낮을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였다(손은령, 2002; 이상희, 2006). 따라서 진로장벽은 진로관련 변인들과 개인 특성 등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진로장벽을 지각하는가에 따라서는 그 관련성이 달리 나타났다. 이상희(2005)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중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직업정보'만이 진로태도성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김선중(200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성격문제와 '정보부족', '흥미부족'문제만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기명확성의 부족과 성격문제, 흥미부족 및 직업정보부족을 포함하는 내적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경우 진로포부를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주변사람과의 갈등 및 사회적 요구조건을 포함하는 외적 진로장벽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미나, 2011). 게다가 여대생이 속한 교육환경 및 학교유형 및 인종 등의 변인을 중심으로 분류한 집단 간 비교에서 각 집단이 유효하게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달랐는데(강정은, 2008; 이성식, 정철영, 2007; 정홍원, 2002; Lopez & Ann-Yi, 2006), 이는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내용과 그에 따른 심리적 변인들과의 연관성이 달리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선 연구들은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으나, 실제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여대생이 어떻게 분류되고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한계가 포함되지 않은 남녀공동 진로장벽 척도를 사용한 경우, 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특수성을 측정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다(김선중, 2005; 유나현, 이기학, 2009; 이상희, 2005; 이상희, 2006; 이현림, 김순미, 천미숙, 차숙경, 2008). 이에 따라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여대생들이 모두 동질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에 기초해서 여대생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어떠한 군집으로 도출되고, 이러한 군집들은 어떠한 특성들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 2) 진로장벽의 분류 및 하위요인

Crites(1969)는 진로장벽을 내적인 요인(자기개념)과 환경적인 요인(직장 내에서 차별)으로 나누어 보았다. O'Leary와 그의 동료들(1974)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직관적으로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개념을 연구하면서 '사회적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의 역량에 대한 태도' 등을 외적장벽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낮은 자존감' 등은 내적장벽으로 분류하였다. Farmer(1976)는 여성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성공에 대한 공포, 성역할 지향성, 차별, 낮은 학문적 자존감을 포함한 10가지로 보았으며, 이들을 크게 내적장애와 외적장애로 분류하였다. 이후에 진행된 진로장벽 연구들은 진로장벽이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Swanson & Tokar, 1991).

McWhirter(1977)는 그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진로장벽 검사를 제작하였으며, 해당검사는 미래의 직업차별, 학교에 출석한다면 느끼는 어려움, 학교장면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진로장벽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로 진로장벽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Swanson과 그의 동료들(1996)은 '자신감 부족', '준비부족', '의사결정의 어려움', '진로에 대한 불만족', '비전통적 진로 선택에 대한 용기 부족', '다중 역할 갈등', '양육과 진로 사이의 갈등', '중요한 타인의 불인정', '네트워킹/사회화의 문제', '성차별', '인종차별', '직업시장', '장애/건강 관련 염려'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국내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은영(2001)이 '자기 명확성 부족',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에 대한 불안', '대인관계의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직업정보 부족', '나이문제'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으로 제

시하였다. 손은령(2001)은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대생 진로장벽 검사를 제작하였는데, 여기에는 ‘차별’,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 특성의 부족’, ‘다중역할 갈등’,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포함되었다. Tak과 Lee(2003)는 ‘한국 대학생 진로결정장애검사’를 제작하였고, 외적 장애요인과 4가지 내적장애요인(‘직업정보부족’ 요인, ‘자기명확성 부족’ 요인, ‘우유부단한 성격’ 요인, ‘필요성의 인식’ 부족 요인)을 하위요인으로 제안했고, 일부 연구에서는 내적장애의 4가지 요인을 묶어 외적장애와 내적장애로 분류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천석준, 이기학, 2008).

손은령과 이순희(2010)는 국내에서 개발된 진로장벽 척도의 공통요인으로 ‘개인특성 문제’와 ‘자기이해 부족’이 모든 척도에 포함되어 있으며, ‘역할갈등’이 상당히 많은 검사도구들에서 측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도구들은 ‘개인특성문제’, ‘자기이해부족’, ‘미래불안’, ‘중요한 타인들과의 갈등’이 주요 요인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한편, 개발된 진로장벽 척도들은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Swanson과 그의 동료들(1996)이 제작한 CBI(Career Barrier Inventory)의 하위요인으로 ‘인종차별’이 있었지만, 김은영(2001)의 연구에서는 ‘차별’과 관련한 하위요인이 따로 발견되지 않아 진로장벽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손은령(2001)이 제작한 여대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척도에서는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차별’,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하위요인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김은영(2001)의 척도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진로장벽의 하위 집단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의 성별, 학교의 형태, 학년, 흥미, 전공, 인종에 따라 비교하거나(강정은, 2008; 김선중, 2005; 김은영, 2001; 손은령, 2001; 손은령, 2002; 연구진, 양지웅, 이정선, 장애경, 김정기, 2013; 이순영, 2008; 정홍원, 2002; 천석준, 이기학, 2008; Lent

et al., 2002; Lopez & Ann-Yi, 2006), 진로장벽의 전체점수를 상위 25%와 하위 25%로 나누어 진로장벽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비교하였다(손은령, 손진희, 2005).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변인을 중심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차이를 검증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분류된 집단에 속한 개인의 특성을 살펴보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개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강정은, 2008; 고미나, 2011; 박용두, 이기학, 2007; 천석준, 이기학, 2008; 이동혁, 2011).

### 3.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은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을 측정하기 위해서 형성된 개념으로, 개인의 일생에 걸쳐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알고 정보를 탐색하며, 비교적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는 자신의 현재 상태 이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의미한다(고향자, 1992; Crites, 1969).

선행연구에 따르면 박신영과 이동형(2013)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이 낮을수록 학교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정체감과 낙관성이 높은 경우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박미경, 김영숙, 이현림, 2008; 이순희, 손은령, 2013), 특성불안과 의사소통 불안, 역기능적 진로사고 및 진로장벽이 높은 경우 진로결정수준은 낮았다(박미진, 김진희, 2014; 신선임, 김수임, 2013; 이보현, 두훈, 이은정,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2013). 따라서 진로결정수준은 개인내적인 심리적 변인들과 상대적으로 연관이 높으며 특히 낙관성과 불안, 역기능적 진로사고와의 상관을

비교해 볼 때, 개인의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진로결정수준은 이를 지각하는 여대생의 학년과 전공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학생의 경우 4학년이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 시기에 진로결정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2학년은 실질적으로 진로고민을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향자, 1992; 정홍원, 2002). 또한 전공에 따라 비교적 취업의 목표가 명확한 사범계열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이로 미루어 보아 진로결정의 상태는 개인의 환경적인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정홍원, 2002).

손은령과 손진희(2005)는 학년과 불안, 내외통제성 및 진로장벽 중 진로결정수준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변인은 진로장벽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결정수준은 ‘물리적 제약’, ‘사회적 영향’, ‘차별대우’를 포함한 일부 진로장벽들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미나, 2011). 따라서 진로결정수준은 진로장벽의 지각수준과 내용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은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중요한 변인이고, 상대적으로 내적 진로장벽과 관련이 높으며, 외적 진로장벽과는 연관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개인의 하위군집 간에 진로결정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4.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개념을 진로에 접목시킨 개념이다. 즉 개인이 진로활동에 있어 본인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만들고, 이것이 진로행동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Hackett & Betz, 1981). 따라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진

로미결정상태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Taylor & Betz, 1983).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진로이론에 의해 매개변인으로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 연관성이 연구되었다(Brown & Hackett, 2000; Lent & Brown, 2008; Lent, Brown & Hackett, 1994; Bandura, 1977).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았다(송현심, 홍혜영, 2010). 또한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 변인으로 밝혀졌으며(조명실, 최경숙, 2007), 전미리와 김봉환(201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격 5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희와 손은령(201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낙관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는데, 여학생에게서만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상희(2006)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진로장애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여대생에게 있어 진로행동을 유발시키는 심리내적 동기변인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저해되며, 낮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경험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와 진로발달의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고미나, 2011; 김선중, 2005; 이상희, 2006; 이성식, 정철영; 2007; 이순희, 손은령, 2013), 대학생의 성별과 학년, 대학생이 지각하는 불안과 내외통제성 및 진로장벽 중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진로장벽이었다(손은령, 손진희, 2005). 또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과 진로변인들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성격문제'와 '정보부족', '흥미부족'문제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쳤고, 성별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나이문제'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여학생은 '능력부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문제해결'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목표선택, 직업정보, 미래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선중, 2005). 이는 내적진로장벽만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여대생의 진로경험에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연구들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미나, 2011; 이상희, 2006).

이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여대생의 진로경험에 있어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며, 진로장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로장벽을 지각하는데 있어 내적진로장벽을 지각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개인의 하위유형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 5.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자기 자신의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이나 진로목표 달성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설정된 목표달성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과 같은 모든 진로수행활동을 의미한다(김봉환, 1997). 진로준비행동은 진로활동의 실질적인 행동을 측정하는 변인으로서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수준과 같은 심리내적인변인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김봉환, 김계현, 1997). 즉 진로결정수준이 높더라도 실제 진로수행활동은 저조할 수 있으며, 반대로 진로수행활동이 높아도 개인의 진로결정수준이 높거나 심리적인 태도가 성숙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준비행동은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는데, 손은

령과 손진희(2005)는 진로준비행동이 개인적인 변인(성, 학년, 불안, 내외통제성)과 맥락적인 변인(진로장벽)의 영향을 받으며,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변인과 다르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측정하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은 진로확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오은주, 2014; 임지선, 장인운, 2015; 조명실, 최경숙, 2007),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높으면 학교적응만족도가 높았다(박신영, 이동형, 2013). 그러나 진로결정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진로준비행동이 높으면 오히려 학교적응만족도가 낮았으며(박신영, 이동형, 2013), 손은령과 손진희(2005)의 연구에서 여대생이 남자대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진로결정수준이 낮고,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은 여대생의 학교적응과 진로발달에 있어 주요한 고려사항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맥락적 변인으로서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손은령, 손진희, 2005), 정효경(2009)의 연구에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이 유의한 부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이는 손은령과 손진희(200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요인들은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대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성격'문제와 '정보부족', '흥미부족' 문제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신체열등'과 '부모갈등'은 오히려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는 진로장벽의 하위변인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고, 외부와 접촉가능성이 높은 변인들이었다(김선중, 2005). 따라서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내용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진로준비행동은 구체적인 행동변인으로서 앞선 언급한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구분되는 특성을 보이며, 진로장벽의 하위집단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으로 추론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조사대상자는 취업 사이트(알바몬, 알바천국, 스펙업 등)의 홈페이지와 일부 학교의 커뮤니티 및 취업구인 게시판, 트위터, 카카오톡 등의 SNS를 통하여 모집하였다. 답례품은 1,000원 상당의 편의점 커피를 기프티콘으로 증정하였다. 설문은 400명을 목표로 모집되었으며, 2016년 2월말부터 3월 말까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총 405명이 응답했을 때 종료하였고, 이 중 설문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 기타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설문을 제거하여 총 362개의 설문을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가한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2.8이었고 표준편차는 1.8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설문에 응한 연령은 23세였다. 전체 응답자중 223명(61.6%)이 남녀공학에 소속된 여대생이었으며, 여자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은 139명(38.4%)이었다. 또한 4년제 대학교에 소속된 여대생은 326명(90.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학 소속의 여대생은 34명(9.4%), 이외 전문학교를 비롯한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속한 여대생은 2명(0.6%)이 응답하였다. 학교의 소재지는 수도권이라 응답한 여대생이 329명(90.9%)이었으며, 수도권이 아니라고 응답한 여대생은 33명(9.1%)이었다. 학년은 3학년이 117명(32.3%)명으로 가장 많았고, 4학년이 113명(31.2%), 2학년이 90명(24.9%), 1학년이 32명(8.8%)순으로 많이 응답하였으며, 졸업유예 및 휴학을 비롯한 기타에 응답한 학생들이 10명(2.8%)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라서는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124명(3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연이 공계열 107명(29.6%), 상경계열 41명(11.3%), 예체능계열 37명(10.2%), 의료 간호계열 17명(4.7%), 기타 17명(4.7%), 법학계열 9명(2.5%), 사범계열 6명(1.7%)명, 생활과학계열 4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다소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148명(40.9%)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101명(27.9%), 다소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50명(13.8%), 매우 만족하는 학생들은 45명(12.4%),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18명(5.0%)순으로 나타났다. 학점은 3.51-4.0인 학생들이 120명(3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1-3.5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70명(19.3%), 4.01-4.5는 57명(15.7%), 2.51-3.0은 30명(8.3%), 0-2.5는 4명(1.1%)순으로 나타났고 신입생 및 미기입을 포함한 기타에 응한 학생은 30명(8.3%)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교유형1	남녀공학	223	61.6
	여자대학	139	38.4
학교유형2	4년제	326	90.1
	전문대	34	9.4
	기타	2	0.6
학교 소재지	수도권	329	90.9
	비수도권	33	9.1
학년	1학년	32	8.8
	2학년	90	24.9
	3학년	117	32.3
	4학년	113	31.2
	기타	10	2.8
전공	인문사회계열	124	34.3
	자연이공계열	107	29.6
	상경계열	41	11.3
	법학계열	9	2.5
	생활과학계열	4	1.1
	사범계열	6	1.7
	예체능계열	37	10.2
	의료간호계열	17	4.7
	기타	17	4.7
전공만족도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8	5.0
	다소 만족하지 않는다	50	13.8
	그저 그렇다	101	27.9
	다소 만족한다	148	40.9
	매우 만족한다	45	12.4
학점	0-2.5	4	1.1
	2.51-3.0	30	8.3
	3.01-3.5	70	19.3
	3.51-4.0	120	33.1
	4.01-4.5	57	15.7
	기타	30	8.3
합계		362	100.0

## 2. 측정도구

### 1) 진로장벽

본 연구에서는 손은령(2001)이 여대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진로장벽 검사(CBI: Career Barriers Inventory)를 사용하여 해당 변인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검사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진로장벽 검사이며, 하위요인으로는 ①차별('직무부담에 있어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연령 때문에 취업이나 직무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 '), ②직장생활에서 필요한 개인 특성의 부족('직장 생활을 잘 해나갈 자신이 없다', '내 자신에 대해 매사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 ③다중역할로 인한 갈등('자녀로 인해 내 직장생활이 방해받는다.', '가정에서의 스트레스가 내 직장생활에 영향을 준다. '), ④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지금의 경제상황에서 내가 취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내 경제상황의 변화 때문에 직업적으로 성공할 것 같지 않다. '), ⑤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내가 원하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는 승진 기회가 적어 보인다. '), ⑥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나의 신체적 조건이나 외모로 인해 취업 시 차별 받는다. '), ⑦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직장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격증이 없다.', '어떻게 취직해야 할지 방법을 모른다. ') 등 7개이며, 총 5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7점 Likert척도로 제작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많이 겪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손은령과 이순희(2010)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5 였고,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5로 보고되었다.

<표 2> 진로장벽척도 검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alpha$
차별	15, 35, 36, 39, 40, 43, 45, 46, 47, 49, 51, 54, 55, 57	14	.90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 특성의 부족	1, 9, 17, 18, 19, 23, 29, 32, 37, 48	10	.90
다중 역할 갈등	2, 8, 10, 16, 21, 25, 31, 42, 53	9	.87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	6, 13, 20, 33, 38, 44, 50, 52	8	.86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3, 4, 14, 24, 27, 34	6	.76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	12, 22, 30, 41, 56	5	.71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5, 7, 11, 26, 28	5	.60
전체		57	.95

## 2)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Osipow와 그의 동료들(1980)이 제작하고, 고향자(1992)가 번안한 진로결정검사(CDS: Carrer Deci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원안에서는 총 19개의 문항으로 마지막 1문항은 연구대상자로 하여금 반응한 내용을 명료화하는 목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한 18문항을 사용하고자 하였다(박신영, 이동형, 2013; 정홍원, 2002; 고향자, 1992). 측정은 4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 1번부터 2번 문항은 자신의 진로에 관한 확신문항이며, 3번부터 18번까지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3번부터 18번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Osipwo와 그의 동료들(198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6이었고, .80의 반분신뢰도가 보고되었다. 고향자(1992)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가 .80,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79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가 .90으로 보고되었다.

### 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Betz와 그의 동료들(1996)의 CDMSE단축형(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SF)을 번안하고, 이은경(2000)이 이를 다시 전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은경(2000)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는 직업정보수집, 목표요인, 미래계획, 문제이해 등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문항에 5점 Likert 척도로 제작되었다. Betz와 동료들의 원안에서는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5로 나타났으며, 이기학과 이학주(200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2, 이은경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가 .85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가 .91로 보고되었다.

<표 3>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alpha$
목표선택	1, 2, 3, 6, 8, 9, 11, 14, 18, 20, 22	11	.87
직업정보	7, 15, 19, 21, 23, 24	6	.76
문제해결	13, 17, 25	3	.72
미래계획	4, 5, 10, 12, 16	5	.71
	전체	25	.91

#### 4) 진로준비행동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검사를 사용하였다. 해당척도는 총 16문항으로 4점 Likert척도로 제작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와 관련된 행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등으로 관련정보수집 및 준비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4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2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가 .86으로 보고되었다.

#### 5) 인구통계학적 설문지

본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알아보고자 나이, 학교유형, 학교 소재지, 학년, 전공계열, 학점 및 전공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학교유형 첫 번째 형태로는 재학생의 성별형태의 따라 남녀공학과 여자대학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두 번째 형태로는 4년제와 전문대, 직업학교를 포함한 학제에 따른 유형을 조사하였다. 학교 소재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학점은 만점학점이 각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취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학점변환공식에 따라 4.5점 만점으로 변환하였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주요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군집분석과 분산분석에 앞서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여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에 따른 하위군집이 존재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최적의 군집수를 추정한 뒤,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군집수를 확정하였다.

셋째,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하위군집 간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군집유형에 따라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 및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에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된 총 362개의 자료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주요 측정변인인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각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 4>와 같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과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진로장벽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장벽의 상관계수는 진로장벽의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 $r=-.80, p<.001$ ),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r=-.60, p<.001$ ),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 특성의 부족( $r=-.50, p<.001$ ),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r=-.47, p<.001$ ),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 $r=-.40, p<.001$ ), 차별( $r=.39, p<.001$ )과 다중 역할 갈등( $r=-.28, p<.0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개인의 성격적인 영역, 자신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인맥과 노동시장의 환경은 물론 성별에 따른 차별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개인의 직업선택에 있어 방해요인으로 연관이 있다고 설명될 수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상관계수는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 $r=-.56, p<.001$ ),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r=-.43, p<.001$ ),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 특성의 부족( $r=-.41, p<.001$ ),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r=-.28, p<.001$ ), 차별( $r=-.23, p<.001$ ),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 $r=-.23, p<.001$ ), 다

중 역할 갈등( $r=-.17, p<.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에 대한 확신이나 성격적인 특성은 물론 여성으로서의 한계나 사회적인 어려움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들도 유사한 상관수준을 나타냈다. 하위변인 중 목표선택은 진로장벽과 부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상관계수는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 $r=-.57, p<.001$ ),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r=-.39, p<.001$ ),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 특성의 부족( $r=-.37, p<.001$ ),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r=-.28, p<.001$ ),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 $r=-.24, p<.001$ ), 차별( $r=-.23, p<.001$ ), 다중 역할 갈등( $r=-.11, p<.05$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정보와 진로장벽의 상관계수는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 $r=-.46, p<.001$ ),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r=-.36, p<.001$ ),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 특성의 부족( $r=-.34, p<.001$ ),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r=-.27, p<.001$ ), 차별( $r=-.22, p<.001$ ),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 $r=-.21, p<.001$ ), 다중 역할 갈등( $r=-.16, p<.0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계획도 앞선 진로장벽의 두 하위변인과 유사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미래계획과 진로장벽의 상관계수는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 $r=-.52, p<.001$ ),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r=-.47, p<.001$ ),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 특성의 부족( $r=-.44, p<.001$ ),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r=-.27, p<.001$ ), 다중 역할 갈등( $r=-.26, p<.001$ ), 차별( $r=-.24, p<.001$ )과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 $r=-.24, p<.00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제해결은 진로장벽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 $r=.08, p=.155$ ), 차별( $r=.07, p=.173$ ),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r=.01, p=.851$ ), 미결정 및 직업 준비( $r=.01, p=.659$ )는 유의하지 않은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으나,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 특성의 부족( $r=-.08, p=.562$ ),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r=-.05, p=.304$ ), 다중 역할 갈등( $r=-.02, p=.132$ )과는 유의하지 않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진로장벽을 지각하면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목표를 선택하고 직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며,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과 행동은 진로장벽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장벽의 상관계수는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 $r=-.38$ ,  $p<.001$ ),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r=-.28$ ,  $p<.001$ ),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의 특성( $r=-.28$ ,  $p<.001$ ), 차별( $r=-.22$ ,  $p<.001$ ),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r=-.13$ ,  $p<.05$ ), 다중 역할 갈등( $r=-.13$ ,  $p<.0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 $r=-.09$ ,  $p=.106$ )은 유의한 상관을 보고하지 않았다. 진로준비행동은 앞선 두 변인들과 다르게 전반적으로 상관 수준이 낮은 편이었고, 다른 양상의 상관을 보고하였다. 이는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다른 진로의 영역을 측정하는 도구이며,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거나 지연시키는데 있어 진로장벽과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은 적은 승진 기회, 기대보다 낮은 보수 등을 뜻하기 때문에 진로결정 후 행동단계에서는 주요한 고려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일부 변인들과의 상관 및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해석 시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자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모든 진로장벽과 연관이 있었으며, 상관계수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어 진로결정과 이에 대한 능력의 신뢰는 개인적·사회적인 어려움과 모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준비상태가 원만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저조하였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승진의 기회부족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적인 진로장벽들과 연관이 있으며, 외부에서 지각되는 어려움은 연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 및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													
2	.53***	-												
3	.67***	.47***	-											
4	.46***	.58***	.32***	-										
5	.55***	.62***	.49***	.68***	-									
6	.44***	.47***	.37***	.43***	.49***	-								
7	.66***	.52***	.49***	.50***	.52***	.42***	-							
8	-.39***	-.50***	-.28***	-.80***	-.60***	-.40***	-.47***	-						
9	-.23***	-.37***	-.11*	-.57***	-.39***	-.24***	-.28***	.60***	-					
10	-.22***	-.34***	-.16**	-.46***	-.36***	-.21***	-.27***	.46***	.66***	-				
11	.07	-.08	-.02	.01	-.05	.08	.01	.03	.30***	.22***	-			
12	-.24***	-.44***	-.26***	-.52***	-.47***	-.24***	-.27***	.45***	.66***	.60***	.31***	-		
13	-.23***	-.41***	-.17**	-.56***	-.43***	-.23***	-.28***	.55***	.92***	.82***	.48***	.82***	-	
14	-.22***	-.28***	-.13*	-.38***	-.28***	-.09	-.13*	.27***	.40***	.44***	.14**	.55***	.50***	-
평균	3.56	3.64	4.27	3.91	4.27	3.67	2.85	2.56	3.63	3.61	3.36	2.89	3.45	2.46
표준편차	1.08	1.10	1.14	1.31	1.11	1.08	1.00	0.55	0.67	0.70	0.91	0.74	0.58	0.53

\* $p < .05$ , \*\* $p < .01$ , \*\*\* $p < .001$

1. 차별 2.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 특성의 부족 3. 다중 역할 갈등 4.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 5.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6.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 7.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8. 진로결정수준 9. 목표선택 10. 직업선택 11. 문제해결 12. 미래계획 1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4. 진로준비행동

## 2. 진로장벽에 따른 군집유형

진로장벽의 7개 하위요인들(차별,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 특성의 부족, 다중 역할 갈등,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토대로 동질적인 성향을 가진 군집들을 도출하고자, 계층적 군집분석과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이용하였다. 군집분석은 다수의 객체들을 일정한 속성에 따라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 군집 간 유사성과 상이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분석 방법이다(원태연, 정성원, 2010). 군집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진로장벽의 하위변인들의 점수를 표준화하였다. 이후 Wards법에 따른 계층적 군집을 실시하여 군집화 일정표를 산출, 적절한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다. 군집화 일정표는 다음<표 5>과 같다.

<표 5> 군집화 일정표

단계	군집화 계수	계수 차이
·	·	·
·	·	·
·	·	·
355	1080.770	50.029
356	1130.799	76.302
357	1207.101	100.156
358	1307.258	147.219
359	1454.476	219.482
360	1673.958	853.042
361	2527.000	

먼저,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하여 총 4-6개의 군집을 두고, 연구자가 군집수를 직접 지정하는 비계층적 군집분석방법인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송지준, 2009). 모집된 전체 개체수에서 각 군집마다 중심극한정리를 만족하는 30이상의 관측빈도수를 가지고 있고, 각 군집별로 유의한 차이를

가진다고 판단되는 5개의 군집 수를 확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군집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표 6>과 같이 변인들의 점수를 표준화하였고, 유형별 프로파일은 [그림 1]과 같다.

<표 6> 최종 군집별 중심점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군집 5
차별	.253	-1.048	-1.577	1.025	.171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 특성의 부족	.410	-.422	-1.425	1.090	-.406
다중 역할 갈등	.178	-1.235	-1.078	.915	.214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	.640	-.012	-1.589	.869	-.643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494	-.348	-1.597	1.044	-.435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	.192	-.568	-1.114	.996	-.157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163	-.769	-1.214	1.242	-.154

군집 1의 특징은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과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을 진로활동의 방해요인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여성적 역할을 포함한 모든 진로장벽을 어려움으로 느끼지만, 특히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전공과 원하는 직업이 달라서, 혹은 노동시장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인맥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군집 1로 분류된 여대생들은 진로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고 이를 해결할 외적 자원이나 사회적인 환경 또한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해당 집단을 ‘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이라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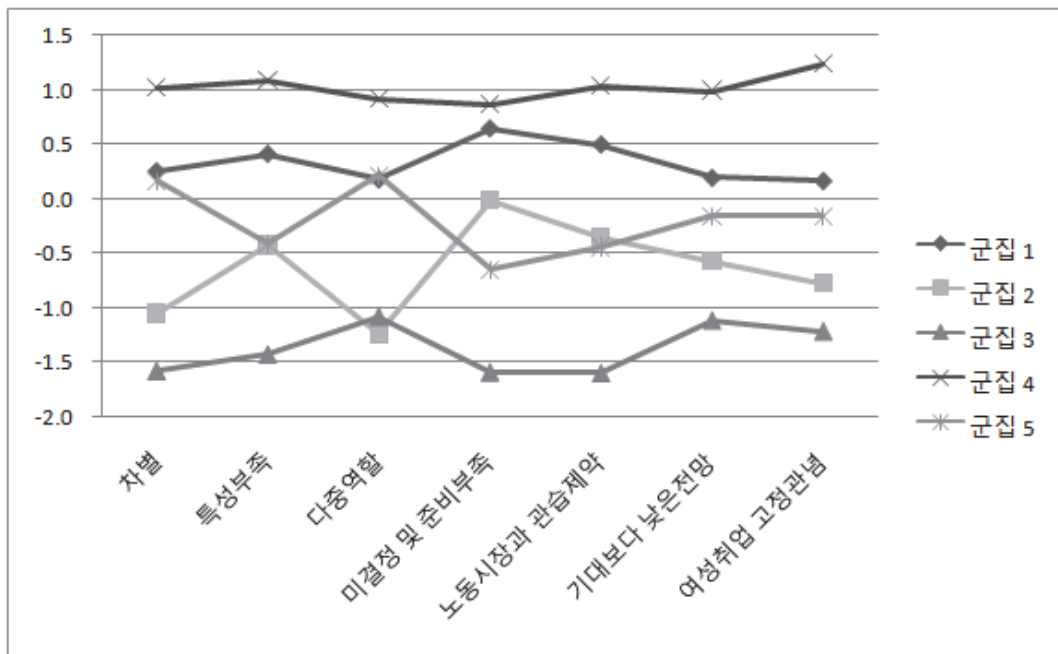
군집 2는 군집 1(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과 유사하게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과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을 다른 장벽들보다 높게 지각하였으나, 차별이나 다중 역할 갈등을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지각하였다. 즉 이들은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것이 자신의 진로 미결정이나 준비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사회가 불안정하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적절한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 힘들다고 느낀다. 그러나 사회적인 여성적 역할에 따른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거의 지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진로 미결정-성적제약 미지각형'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3은 모든 군집 중 진로장벽을 가장 적게 지각하며, 상대적으로 모든 면에서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편안하게 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다중 역할 갈등을 다소 높게 지각하며, 해당 장벽의 점수가 군집 2(진로 미결정-성적제약 미지각형)보다 조금 높았다. 즉 이들은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자신의 기대보다 낮은 보수 등 경제적인 면과 역할갈등을 방해요인으로 지각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으며 진로목표와 자기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진로장벽 저지각형'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4는 거의 모든 진로장벽을 지각하며 다른 군집들 보다 높은 진로장벽을 지각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이며, 집단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을 낮게 지각하였다. 즉 이들은 자신 스스로가 직장생활에 적합한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과 동시에 현재 노동시장의 환경이나, 자신이 가진 여성으로서의 한계가 취업과 직장생활에 방해가 될 것이라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진로장벽 고지각형'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 5는 군집 2(진로 미결정-성적제약 미지각형)와 상반되는 양상을 보

이는 집단이다. 해당 군집유형에 속하는 여대생들은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이나 여러 역할로 인한 갈등이 자신의 직장생활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진로에 대한 결정이 비교적 명료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은 진로에 다소 확신이 있고, 노력하면 직장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여성이기에 차별을 받거나 가정과 직장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구직생활을 비롯한 취업활동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군집 5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여성의 역할갈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집단이기에 ‘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이라 명명하였다.



[그림 1]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에 따른 여대생 집단의 군집유형

### 3. 군집유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

아래 <표 7>을 살펴보면 군집 1은 ‘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으로, 진로에 대한 확신과 준비가 미흡하고,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개인적(신체적 조건, 성격적 특성)·사회적 자원(인맥, 사회적 상황 등)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며, 전체 362명 중 110명(30.4%)이 해당되었다. 군집 2는 ‘진로 미결정-성적제약 미지각형’으로 진로결정이 명료하지 않고, 성적인 사회적 제약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는 집단이었으며, 전체 362명 중 47명(13.0%)이 이에 속하였다. 군집 3은 ‘진로장벽 저지각형’으로 다중 역할 갈등을 제외한 진로장벽들을 가장 낮게 지각하는 집단이고, 전체 362명 중 40명(11.0%)이 해당하였다. 군집 4는 ‘진로장벽 고지각형’으로 모든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전체 362명 중 66명(18.2%)이 분류되었다. 군집 5는 ‘진로 결정-성적 제약 지각형’으로 진로결정에 대해 다소 명료하나, 사회적으로 부과된 성적 역할을 지각하는 집단으로, 전체 362명 중 99명(27.3%)이 이에 해당되었다. 각 군집이 학교유형1(남녀공학, 여자대학), 학교유형2(4년제, 전문대, 기타), 학교 소재지, 학년, 전공계열, 전공만족도, 학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유형2(4년제, 전문대, 기타)와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학교유형2:  $\chi^2(df=8, n=362)=29.897, p<.001$  전공만족도:  $\chi^2(df=16, n=362)=59.678, p<.001$ ], 그 외 변인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학교유형1:  $\chi^2(df=4, n=362)=2.707, p=.608$ , 학교 소재지  $\chi^2(df=4, n=362)=.985, p=.912$ , 학년:  $\chi^2(df=16, n=362)=22.257, p=.135$ , 전공:  $\chi^2(df=32, n=362)=22.841, p=.883$ , 학점:  $\chi^2(df=25, n=362)=21.132, p=.321$ ].

이러한 결과는 학제유형과 전공에 대한 만족이 진로장벽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먼저 아래의 <표 7>과 [그림 2]를 살펴보면, 가장 적응적이라

고 보였던 군집 3(진로장벽 저지각형)은 전문대 학생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4년제 학생의 비율은 가장 적었다[군집 3: 전문대(25.0%), 4년제(75.0%)].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성적인 제약을 거의 지각하지 않는 군집 2(진로 미결정-성적제약 미지각형)는 전문대 학생들의 비율이 군집 3(진로장벽 저지각형) 다음으로 높았으며, 4년제 대학생의 비율은 군집 3(진로장벽 저지각형) 다음으로 적었다[군집 2: 전문대(21.3%), 4년제(78.7%)]. 군집 1(진로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은 기타와 전문대 학생의 비율이 군집 2(진로 미결정-성적제약 미지각형)보다 적고 군집 4(진로장벽 고지각형)보다 높았으며[군집 1: 전문대(5.5%), 4년제(92.7%), 기타(1.8%)], 군집 4에서 4년제 학생의 비율이 군집 5(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보다 적었고, 군집 1(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보다 많았다[군집 4: 전문대(6.1%), 4년제(93.9%)].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높게 지각하는 군집 5(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에서 4년제 학생의 비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학생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군집 4: 전문대(4.0%), 4년제(96.0%)]. 다만 군집 3(진로장벽 저지각형)과 군집 2(진로 미결정-성적제약 미지각형)를 제외한 군집과 군집 4(진로장벽 고지각형), 군집 5(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는 그 비율의 차이가 미미하여 이들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의 비해 전문대의 비율이 높았고, 4년제의 비율이 낮았던 군집 3(진로장벽 저지각형)과 군집 2(진로 미결정-성적제약 미지각형)가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는 집단이었고,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였던 군집 4(진로장벽 고지각형)와 군집 1(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에서 전문대 학생의 비율이 적고 4년제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표 7>과 [그림 3]을 살펴보면, 진로장벽을 가장 낮게 지각하며 적응적이라고 판단되었던 군집 3(진로장벽 저지각형)에서 전공에 만족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다[군집 3: 매우 만족한다(35.0%), 다소 만족한다(37.5%)]. 다음으로 군집 5(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가 높았으며[군집 5: 매우 만족한다(18.2%), 다소 만족한다(51.5%)], 군집 2(진로 미결정-성적제약 미지각형)[군집 2: 매우 만족한다(10.6%), 다소 만족한다(44.7%)], 군집 1(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 순으로 나타났으며[군집 1: 매우 만족한다(5.5%), 다소 만족한다(34.5%)], 마지막으로 모든 진로장벽을 가장 높게 지각했던 군집 4(진로장벽 고지각형)에서 전공을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군집 4: 매우 만족한다(18.2%), 다소 만족한다(51.5%)]. 이러한 결과는 진로장벽 중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과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을 낮게 지각하는 집단일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학교유형2(학제)와 전공만족도를 제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학교유형(학제)과 전공만족도가 진로장벽의 하위군집과 연관이 있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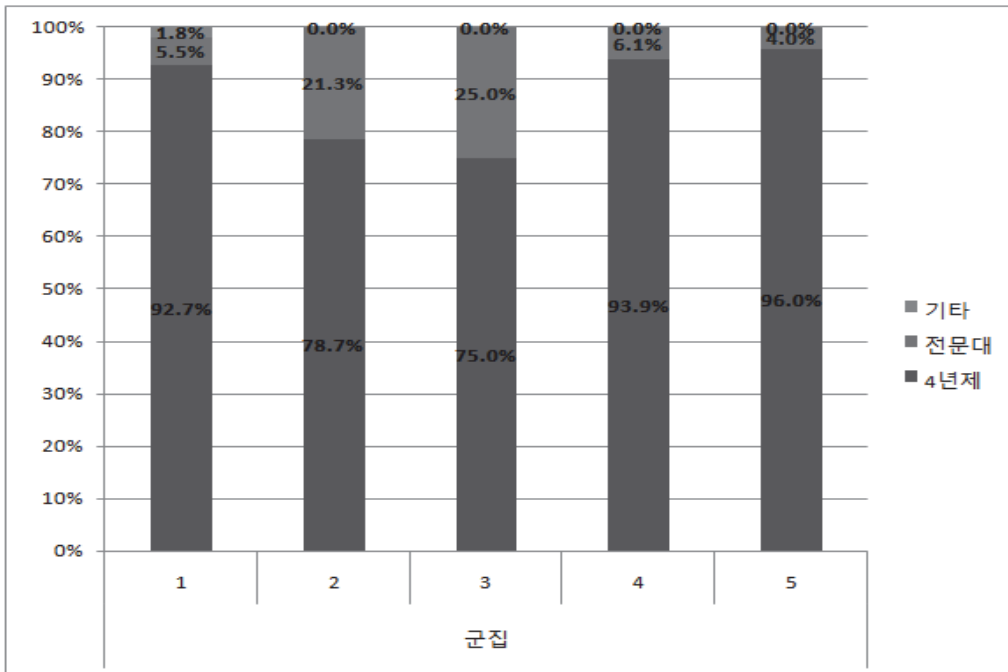
<표 7>군집유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차이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군집 5	$\chi^2$ (df)
		진로 미결정 -사회적 제약 지각형	진로 미결정 -성적제 약 미지각형	진로장벽 저지각형	진로장벽 고지각형	진로 결정-성 적제약 지각형	
학교 유형1	남녀	63	32	23	40	65	2.707 (4)
	공학	(57.3%)	(68.1%)	(57.5 %)	(60.6 %)	(65.7%)	
	여자	47	15	17	26	34	
대학		(42.7%)	(31.9%)	(42.5%)	(39.4%)	(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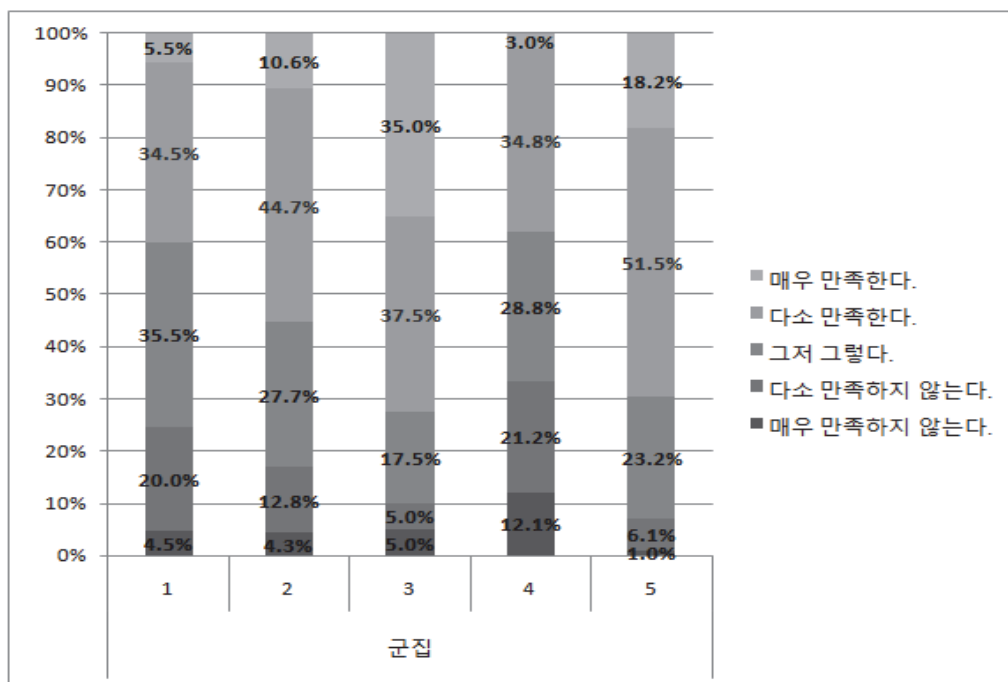
학교 유형2	4년제	102 (92.7%)	37 (78.7%)	30 (75.0%)	62 (93.9%)	95 (96.0%)	29.897 (8)***
	전문대	6 (5.5%)	10 (21.3%)	10 (25.0%)	4 (6.1%)	4 (4.0%)	
	기타	2 (1.8%)	0 (0.0%)	0 (0.0%)	0 (0.0%)	0 (0.0%)	
학교 소재지	수도권	98 (89.1%)	43 (91.5%)	36 (90.0%)	60 (90.9%)	92 (92.9%)	.985 (4)
	비 수도권	12 (10.9%)	4 (8.5%)	4 (10.0%)	6 (9.1%)	7 (7.1%)	
	1학년	12 (10.9%)	4 (8.5%)	4 (10.0%)	6 (9.1%)	6 (6.1%)	
2학년	20 (18.2%)	19 (40.4%)	13 (32.5%)	16 (24.2%)	22 (22.2%)		
3학년	42 (38.2%)	13 (27.7%)	10 (25.0%)	18 (27.3%)	34 (34.3%)		
4학년	32 (29.1%)	11 (23.4%)	11 (27.5%)	22 (33.3%)	37 (37.4%)		
기타	4 (3.6%)	0 (0.0%)	2 (5.0%)	4 (6.1%)	0 (0.0%)		
전공	인문 사회	34 (30.9%)	15 (31.9%)	15 (37.5%)	26 (39.4%)	34 (34.3%)	22.841 (32)
	자연 이공	39 (35.5%)	13 (27.7%)	7 (17.5%)	20 (30.3%)	28 (28.3%)	
	상경	15 (13.6%)	7 (14.9%)	3 (7.5%)	4 (6.1%)	12 (12.1%)	
	법학	3 (2.7%)	0 (0.0%)	2 (5.0%)	1 (1.5%)	3 (3.0%)	
	생활 과학	1 (0.9%)	1 (2.1%)	0 (0.0%)	1 (1.5%)	1 (1.0%)	
	사범	1 (0.9%)	0 (0.0%)	1 (2.5%)	1 (1.5%)	3 (3.0%)	

	예체능	9 (8.2%)	5 (10.6%)	5 (12.5%)	10 (15.2%)	8 (8.1%)	
	의료 간호	3 (2.7%)	3 (6.4%)	4 (10.0%)	2 (3.0%)	5 (5.1%)	
	기타	5 (4.5%)	3 (6.4%)	3 (7.5%)	1 (1.5%)	5 (5.1%)	
전공 만족도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5 (4.5%)	2 (4.3%)	2 (5.0%)	8 (12.1%)	1 (1.0%)	59.678 (16)***
	다소 만족하지 않는다	22 (20.0%)	6 (12.8%)	2 (5.0%)	14 (21.2%)	6 (6.1%)	
	그저 그렇다	39 (35.5%)	13 (27.7%)	7 (17.5%)	19 (28.8%)	23 (23.2%)	
	다소 만족한다	38 (34.5%)	21 (44.7%)	15 (37.5%)	23 (34.8%)	51 (51.5%)	
	매우 만족한다	6 (5.5%)	5 (10.6%)	14 (35.0%)	2 (3.0%)	18 (18.2%)	
	0-2.5	0 (0.0%)	2 (1.7%)	0 (0.0%)	1 (2.2%)	1 (1.3%)	
2.51-3.0	4 (9.1%)	8 (6.9%)	3 (12.0%)	6 (13.0%)	9 (11.3%)		
3.01-3.5	7 (15.9%)	33 (28.4%)	4 (16.0%)	12 (26.1%)	14 (17.5%)	21.132 (25)	
3.51-4.0	16 (36.4%)	45 (38.8%)	12 (48.0%)	15 (32.6%)	32 (40.0%)		
4.01-4.5	12 (27.3%)	15 (12.9%)	4 (16.0%)	6 (13.0%)	20 (25.0%)		
기타	5 (11.4%)	13 (11.2%)	2 (8.0%)	6 (13.0%)	4 (5.0%)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2] 군집유형에 따른 학교유형2(학제) 차이



[그림 3] 군집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 차이

#### 4. 군집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에서의 차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에 따라 도출된 5개의 군집 간에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제해결을 제외한 모든 종속변인에서 군집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의 결과는 다음<표 8>과 같다.

<표 8> 군집유형별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차이검증

종속 변인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군집 5	F	사후검증 (Scheffé)
	N=110 M(SD)	N=47 M(SD)	N=40 M(SD)	N=66 M(SD)	N=99 M(SD)		
진로 결정수준	2.26 (.32)	2.63 (.46)	3.31 (.54)	2.13 (.39)	2.84 (.41)	81.06***	4,1<2,5<3
목표선택	3.33 (.48)	3.63 (.57)	4.20 (.78)	3.32 (.67)	3.94 (.55)	27.82***	4,1,2<2,5<5,3
직업정보	3.34 (.60)	3.69 (.58)	4.11 (.78)	3.30 (.74)	3.87 (.57)	19.41***	4,1<1,2<2,5<5,3
문제해결	3.29 (.76)	3.33 (.88)	3.27 (1.23)	3.35 (.95)	3.48 (.90)	.70	
미래계획	2.61 (.64)	2.99 (.60)	3.59 (.88)	2.49 (.68)	3.14 (.59)	26.04***	4,1<2,5<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19 (.43)	3.48 (.47)	3.95 (.74)	3.15 (.57)	3.71 (.45)	28.75***	4,1<2,5<5,3
진로준비행동	2.27 (.48)	2.44 (.56)	2.90 (.62)	2.37 (.44)	2.55 (.47)	13.01***	1,4,2,5,<3

\* $p < .05$ , \*\* $p < .01$ , \*\*\* $p < .001$

먼저, 진로결정수준은 군집 3(진로장벽 저지각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다음으로 군집 5(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와 군집 2(진로 미결정-성적제약 미지각형), 군집 1(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순으로 나타났고, 군집 4(진로장벽 고지각형)의 진로결정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결정수준은 진로장벽 중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과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낮았다. 따라서 자신의 진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며, 자신에게 이를 해어나갈 외적자원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식 할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도 군집 3(진로장벽 저지각형)이 가장 높았으며, 군집 5(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 군집 2(진로 미결정-성적제약 미지각형), 군집 1(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순으로 나타났고, 군집 4(진로장벽 고지각형)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결정수준과 같이 진로에 대한 결정과 준비가 미흡하고, 이에 대한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후분석에서 진로결정수준과 차이를 보이는데, 공통적으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군집 1(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과 군집 4(진로장벽 고지각형)가 서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진로결정수준은 군집 3(진로장벽 저지각형)이 모든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는 군집 3(진로장벽 저지각형)이 군집 5(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군집 3(진로장벽 저지각형)과 군집 5(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는 성별과 관련한 차별내용을 지각하는데 있어 차이를 나타냈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진로가 확실하거나, 이를 다룰 자원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 성적차별과는 연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에 따라서 군집의 특징을 더 세분화 할 수 있었는데, 목표선택은 군집 3(진로장벽

저지각형)과 군집 5(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 다음으로 군집 2(진로 미결정-성적제약 미지각형), 군집 1(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 군집 4(진로장벽 고지각형)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직업정보에는 군집 3(진로장벽 저지각형)과 군집 5(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다음으로 군집 2(진로 미결정-성적제약 미지각형)와 군집 1(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 군집 4(진로장벽 고지각형)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군집 4(진로장벽 고지각형)와 군집 1(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은 목표선택과 직업정보가 낮은 집단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군집 5(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집단 내에서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개인 특성의 부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집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군집 1(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과 군집 5(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는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며, 군집 4(진로장벽 고지각형)와 군집 1(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은 군집 내에서 개인 특성의 부족을 차별, 다중 역할 갈등보다 높게 지각 하였다. 그러나 군집 5(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는 개인 특성의 부족을 차별, 다중 역할 갈등보다 낮게 지각 하였다. 따라서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의 목표선택 및 직업정보는 개인특성의 부족과 연관이 있으며,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외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수록, 진로의 목표를 선택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미래계획에서도 군집 3(진로장벽 저지각형)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군집 5(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와 군집 2(진로 미결정-성적제약 미지각형), 다음으로 군집 1(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과 군집 4(진로장벽 고지각형)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해결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점수는 군집 5(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가 가장 높았고, 군집 4(진로장벽 고지각형), 군집 2(진로 미결정-성적제약 미지각형), 군집 1(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 군집 3(진로장벽 저지각형)순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은 군집 3(진로장벽 저지각형)과 군집 5(진로 결정-성적 제약 지각형)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진로가 다소 명확한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문제해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진로준비행동은 군집 3(진로장벽 저지각형)이 가장 높았으며, 군집 5(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 군집 2(진로 미결정-성적제약 미지각형), 군집 4(진로장벽 고지각형), 군집 1(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변인들과 비슷하게 설명될 수 있으나, 군집 4(진로장벽 고지각형)가 군집 1(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또한 군집 3(진로장벽 저지각형)은 모든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군집 3(진로장벽 저지각형)을 제외한 군집들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군집 3(진로장벽 저지각형)이 가장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집단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군집 1은 ‘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진로장벽을 고루 지각하였으나, 진로 미결정 및 준비 부족,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을 주로 지각 하였다. 즉 이들은 진로에 대한 결정과 준비가 미흡하고, 사회적인 상황의 부적절함을 지각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또한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편에 속하며 진로준비행동은 모든 집단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더욱 명확해 지는데,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군집 4(진로장벽 고지각형)를 제외한 모든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따라서 군집 1(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은 전반적으로 진로의 결정수준이 낮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

족하고, 진로준비행동이 지연되어 있는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군집 2는 ‘진로 미결정-성적제약 미지각형’으로 진로장벽은 중간수준으로 지각하였다. 이들은 군집 1(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과 유의한 양상을 보이나, 여성으로서 부과되는 사회적 역할에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느끼지 않는 집단이었다. 또한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모든 집단들 중 중간수준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진로에 대해 다소 모호한 결정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확신과 자신감도 확실하다고 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집 3은 ‘진로장벽 저지각형’으로 모든 군집 중 진로장벽을 가장 낮게 지각하는 집단이었다. 이들은 자신이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을지, 이로 인한 갈등을 잘 조정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만 이에 대한 걱정수준은 다른 모든 집단보다 낮았다. 이들은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이 모든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은 모든 집단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은 진로가 명확하며, 진로행동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군집 4는 ‘진로장벽 고지각형’으로 모든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며, 타인의 시선이나 직업선택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을 특히 높게 지각하는 집단이었다. 이들 집단이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모든 집단들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군집 1(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을 제외한 모든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진로준비행동은 군집 3(진로장벽 저지각형)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결정수준도 가장 낮으며, 이에 대한 능력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진로준비행동도 비교적 지연되어 있는 집단으로 보인다.

군집 5는 ‘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으로 다른 진로장벽보다 성별, 여성

으로서 역할의 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이었다. 이들 집단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이 군집 3(진로장벽-저지각형)다음으로 높았다. 따라서 이들은 진로가 다소 명료한 편이며, 진로경험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행할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부과된 전통적 성역할에 대해 인정하지만, 진로목표가 명확하고 이를 위해 겪는 어려움을 본인 스스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으로 보인다.

## V. 논 의

###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에 따라 하위군집이 도출되는지를 확인하고, 각 군집 간에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여대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관련 변인의 관계

상관분석 결과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은 대부분의 진로장벽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비롯한 진로태도성숙, 진로발달, 진로포부수준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유사하다(고미나, 2011; 김선중, 2005; 손은령, 손진희, 2005; 이상희, 2005; 이상희, 2006; 이성식, 정철영, 2007; 이순희, 손은령, 2013; 이현립, 김순미, 천미숙, 최숙경, 2008; 정홍원, 2002; 정효경, 2009; Gushue et al, 2006; Lent, Brown & Hackett, 1994; Lent, Brown & Hackett, 2000; Lent et al., 2002).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의 진로결정, 준비부족, 개인 특성의 부족 등 내적인 변인들과의 상관계수가 외적인 변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여성으로서의 한계나 사회적 어려움 보다는 진로에 대한 확신이나 성격적 특성과 연관이 더 많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미나, 2011; 김선중, 2005; 이상희, 2005; 이상희, 2006; 박미경, 김영숙, 이현립, 2008).

한편 진로준비행동은 대부분의 진로장벽과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나,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고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은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보수, 지위와 능력 및 업계의 경제적 여건 등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변인이었다. 진로준비행동은 실질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이미 행동을 실천하기 이전에 목표를 정할 때 직장의 보수나 지위, 직업사회의 전망에 대해서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과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의 상관이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이며, 이로 미루어 보아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다른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김봉환, 김계현, 1997; 김선중, 2005; 김은희, 김봉환, 2010b).

## 2) 여대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하위유형 분류 및 유형별 특징

군집분석을 통하여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에 따라 5개의 군집이 도출되었으며, 각각 ‘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 ‘진로 미결정-성적제약 미지각형’, ‘진로장벽 저지각형’, ‘진로장벽 고지각형’, ‘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으로 명명하였다. 교차분석과 분산분석을 통해 나타난 이들 군집의 인구통계와 진로관련 변인에서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군집유형인 ‘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은 전체의 30.4%가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진로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준비도 미흡하고, 자신에게 이를 극복할만한 인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동시에 사회적 상황과 경제적 여건이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지각한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내적인 어려움은 물론, 사회적인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느낀다. 인구통계학적으로 전문대 학생들이 다소 적게 속해 있었으며, 이들의 40%가 전공에 만족하였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자

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전체 집단 중 낮은 편에 속했다. 따라서 이들은 진로와 관련한 어려움을 막연하게 지각하고, 진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낮은 수준이고, 진로행동은 소극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영지(2008)의 연구에서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이 발견되었고, 이들에게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실질적인 구직행동을 촉진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직업설계를 해보고, 자신과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진로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 군집유형인 ‘진로 미결정-성적제약 미지각형’은 전체의 13.0%가 속해 있었다. 이들은 군집 1(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과 유사하게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을 다른 장벽들보다 높게 지각하였으나, 차별과 다중 역할 갈등을 매우 낮게 지각하였다. 즉 진로목표 설정과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며,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인적자원의 부족과 사회적인 상황을 어려움으로 느끼지만, 사회적으로 부과된 여성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집단이다. 21.3%가 전문대 학생이었으며, 55.3%가 전공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전공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다른 군집들 중 진로준비행동은 군집 3(진로장벽 저지각형)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전체 군집들 중 중간수준이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진로장벽의 다중 역할 갈등이 가장 낮은 집단의 경우 자신감이 높거나 현실적인 검증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우영지, 2008). 따라서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는 반면,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상담 시 이들에게 개입하고자 한다면, 현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군집유형인 ‘진로장벽 저지각형’은 전체의 11.0%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든 군집들 중 진로장벽을 전체적으로 가장 낮게 지각하며, 상대적으로 모든 면에서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편하게 생각하고 행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해당 군집에 속한 이들은 진로가 명확하며, 이에 대한 탐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성으로서의 역할 갈등을 군집 2(진로미결정-성적제약 미지각형)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중 역할 갈등이 자신의 노력여하와 관계없이 상황적인 여건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장벽들에 비해 높게 지각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통계에서 전문대의 비율이 25.0%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높았으며, 72.5%가 전공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모두 유의하게 높았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군집 5(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를 제외한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즉, 해당 군집은 진로결정의 확신수준이 높으며, 다른 집단에 비해 적극적으로 진로준비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문제해결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미래계획에서 다른 집단들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자신이 가진 자원을 평가하고 진로를 위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익숙하며, 현재 진로상태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이 도움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군집유형인 ‘진로장벽 고지각형’은 전체의 18.2%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른 군집들과 비교하여 모든 진로장벽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였으며, 특히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하였다. 즉, 해당 군집에 속하는 이들은 자신이 직장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모를 수 있다. 또한 노동시

장의 환경이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으며, 여성으로서 부과된 역할들을 균형있게 소화할 자신과 이를 극복할 자원이 없다고 느낀다. 특히 주변 타인들이 자신의 직장생활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진로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이 4년제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전공은 37.8%만이 만족하였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은 모든 집단들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군집 1(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을 제외한 다른 집단들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진로준비행동수준은 가장 낮았다. 게다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 문제해결에서 유의하지 않았지만 그 수치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군집의 진로결정의 확신 수준이 낮으며,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행동이 부족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 문제해결에서 유의하지 않지만 그 수치가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따라 현재 진로상황이 문제상황이라고 지각하며, 현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높은 진로장벽의 지각은 개인의 특성불안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이상희, 2006; 이성식, 정철영, 2007, Lent, Brown, & Hackett, 2000), 진로장벽 중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하는 것은 타인의 지지를 기대하기 때문일 수 있다(우영지, 2008). 따라서 해당 군집을 대상으로 개입할 때에는 현실검증을 통하여 불안과 진로장벽을 낮추고, 진로와 관련하여 타인과의 갈등이나 지지에 대한 탐색과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군집유형인 ‘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은 전체의 27.3%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집 2(진로 미결정-성적제약 미지각형)와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은 진로에 대한 결정이 다소 명료한 편이지만, 성별과 관련한 차별 및 여성으로서의 역할갈등을 어려움으로 지각하였다. 즉 해당

군집에 속한 개인은 자신이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성격적·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료한 편이지만, 여성으로서의 한계와 차별을 진로경험에 있어 방해요인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통계에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속해 있었으며, 전공은 과반수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은 모든 집단들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따라서 이들은 여성으로서 겪는 제약을 방해요인으로 지각하지만,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수준과 자신감이 높은 편이며 진로준비행동이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이에 대한 융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개입할 때에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와 관련한 걱정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결과와 함께 몇 가지 논의할 점이 있다. 첫째, 여대생이 지각한 다중 역할 갈등에 대해서이다. 사회진출의 한계에 대해 남성과 여성은 지각에 있어 차이를 보여 왔으며(김은영, 2001; 손은령, 2001; Fitzgerald & Crites, 1980; O'Brien & Fassinger, 1993; Swanson & Tokar, 1991), 본 연구를 통해서 같은 여성집단 내에서도 진로장벽 지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과 '진로 미결정-성적제약 미지각형'은 공통적으로 진로확신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은 여성으로서의 한계와 사회적인 상황 및 경제적 여건을 함께 지각한 반면, '진로 미결정-성적제약 미지각형'은 모든 집단 중에 다중 역할 갈등을 가장 낮게 지각하였다. 또한 '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과 '진로장벽 저지각형'은 진로결정이 다소 명료하며, 상대적으로 다중 역할 갈등을 다른 장벽보다 높게 지각하였다. 본 결과에서 숙고할 부분은 '진로 미결정-성적제약 미지각형'의 다중 역할 갈등수준이 비교적 가장 적응적이며 낮은 진로장벽을 지각한 '진로장벽 저지각형'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선

행연구에 따르면 다중역할계획태도는 구체적인 결혼계획과 정적 연관이 있었으며(Peake, A & Harris, K. L., 2002), 우영지(2008)는 여대생이 다중 역할 갈등을 지나치게 낮게 지각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매우 높거나 현실적인 고려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여성으로서의 전통적 역할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수록 오히려 적응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본 연구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은 다중 역할 갈등을 지각하는 집단임에도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은 ‘진로장벽 저지각형’ 다음으로 높았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다중 역할 갈등을 지각하는 경우 오히려 현실적인 진로설계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문제해결에 대해서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적응적이라 여겨졌던 ‘진로장벽 저지각형’이 분산분석결과 유의하지 않았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문제해결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 ‘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 ‘진로장벽 고지각형’ 순으로 유의하지 않은 높은 문제해결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유사한 사후분석결과를 보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목표선택과 직업정보 및 미래계획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문제해결은 외적 진로장벽 중 진로확신과 진로 미결정, 물리적 제약과는 오히려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고미나, 2011), 나이문제와 유의하지 않은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다(김선중, 2005). 게다가 해당변인의 문항은 ‘처음 선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 ‘처음 선택한 진로나 분야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전공이나 진로의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와 같이 세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문제해결요인은 진로활동에 있어 현 상황의 만족이나 진로변경의 융통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부 진로장벽이 지각되는 경우에 이러한 상황의 불편함을 극

복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담에 대한 필요성의 지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우영지, 2008), ‘진로 결정-성적제약 지각형’은 진로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요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고, ‘진로장벽 저지각형’은 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낮은 집단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셋째, 진로준비행동과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장벽이 낮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다고 하였다(손은령, 손진희, 2005; 임지선, 장인운, 2015; 정효경, 2002).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 배우자의 지지와 부모와의 갈등, 주변사람들의 지지부족 등은 외부적으로 관찰이 가능하며, 이를 진로장벽으로 지각할 경우 진로준비행동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였다(김선중, 2005).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진로장벽이 다양한 요인으로 이루어진 개념이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이현림, 김순미, 천미숙, 최숙경, 2008; Lent, Brown & Hackett, 2000). 본 연구에서는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배우자 및 부모의 지지와 갈등을 나타내는 요인이었는데, ‘진로장벽 고지각형’을 제외한 집단들은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장 높게 지각한 ‘진로장벽 고지각형’은 그 다음 수준으로 지각한 ‘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보다 진로준비행동이 높았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일부 지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진로장벽 고지각형’은 다른 집단에 비해 타인의 지지나 압력에 민감한 집단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진로장벽 고지각형’과 ‘진로 미결정-사회적제약 지각형’이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와 일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척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는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하며, 후속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차검증 결과에 대해서이다. 변인을 중심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연구한 선행결과들은 여대생이 속한 학교의 유형과 소재지, 학년과 전공에 따라 지각하는 진로장벽이나 지각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정은, 2008; 이성식, 정철영, 2007; 정홍원, 2002; Lent et al., 200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제에 따른 학교 유형과 전공만족도 외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가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변인중심(variable-centered) 분석법을 이용한 비교연구가 아니라, 개인중심(person-centered) 분석법을 사용한 연구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Barnard-Brak & Lan, 2010). 한편 학제유형에 따른 차이는 교육커리큘럼과 환경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전문대는 전공의 특화로 인하여 4년제 대학교에 비해, 대안의 폭이 좁고 진로설계가 명확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상담에 오는 내담자들은 진로설계의 폭을 줄이기 위해 방문하며, 선택의 대안이 많을수록 혼란을 느낀다고 하였다(공윤정, 2005). 따라서 학교의 학제유형에 따른 커리큘럼이 소속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폭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전공만족에 따른 군집간의 차이는 전공에 대한 만족이 한 개인의 직업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정미예, 조남근, 2011; Lent & Brown, 2008). 이에 따라 진로상담 및 지도개입에 있어 전공만족을 다루는 것은 주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 2.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의의를 논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진로장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들은 진로장벽과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밝혀내거나(고미나, 2011; 김선중,

2005; 박용두, 이기학, 2007; 손은령, 2002; 오은주, 2014; 유나현, 이기학, 2009; 이상희, 2006; Gushue et al, 2006), 학교유형, 소속, 성별 등의 변인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차이를 살펴보았다(강정은, 2008; 이성식, 정철영, 2007; 손은령, 손진희, 2005; 정홍원, 2002, Lopez & Ann-Yi, 2006; Swanson & Tokar, 1991). 이들은 변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밝혀내고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제 진로장벽의 영향을 받는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중심 분석법의 대표적 방법인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개인을 기준으로 그 차이를 살펴보았으며(이정윤, 2014), 기존의 연구들을 보완하여 진로장벽의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진로프로그램 개발이나 상담개입 시에 고려할만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여대생은 대학생과 여성의 특성과 한계를 동시에 가짐으로서 진로경험과 설계가 어려우며(Fitzgerald & Crites, 1980; O'Brien & Fassinger, 1993; Swanson & Tokar, 1991), 효과적인 개입을 위하여 개인차를 고려해야하는 집단이다(공윤정, 2005). 따라서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하위유형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특징을 기술함으로써, 여대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처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에 따른 군집유형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었다는데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진로장벽 지각에 있어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미나, 2012; 김은영, 2001; 이성식, 정철영, 2007). 그러나 정홍원(2002)의 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은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김선영(2000)의 연구에서는 저학년과 고학년이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특성이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여대생이 학년에 상관없이 진로장벽을

지각하며, 같은 학년이어도 개인의 상황, 진로준비 정도, 진로성숙, 나이와 부모의 교육수준 및 개인 특성 등 다양한 변인에 의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미나, 2012; Lent & Brown, 2008). 이에 따라 상담장면에서 진로장벽을 평가할 때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며, 후속 연구에서 학년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학년특성에 따른 진로상담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의 참가자 모집 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비율이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차검증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었으며, 앞선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정확히 검증하고 일반화 하는 것이 어려웠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균등한 표집을 통하여 선행연구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장벽 척도의 문항이 상대적으로 길며, 제작연도가 오래되어 시대에 맞지 않는 질문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되었지만 질문이 결혼을 하지 않은 여대생에게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느껴지는 문항들이 발견되었다(문항35. 배우자(애인)의 직장이 바뀌어서 내 직장이나 직무를 바꾸어야 한다, 문항45. 배우자가 내 진로 목표보다 자녀양육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등). 따라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경험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척도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연구의 결과를 바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윤정(2005)은 진로장벽을 이용한 진로상담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어 진로장벽척도의 문항을 이용하여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는 진로장벽을 이용한 상담의 방법 중 하나이며, 본 연구의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어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상담장면에 적절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고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강정은 (2008). 진로장벽,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4년제 여자대학생과 전문대 여자대학생의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혜순 (2015). 항공·관광서비스 전공자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학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미나 (2011). 대학생의 내·외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미나, 박재황 (2012). 대학생의 내·외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 학년차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2), 81-100.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공윤정 (2005). 진로장벽 : 이론적 고찰 및 상담 실제에의 적용. 상담학연구, 6(3), 861-874.
- 구정화 (2008. 9). 여대생의 희망직업과 직업기대의 특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학생 직업세계 인식 및 직업선택 실태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5). "2014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2015년 8월 17일, [http://www.nabo.go.kr/Sub/04Etc/04\\_Search.jsp](http://www.nabo.go.kr/Sub/04Etc/04_Search.jsp) 에서 검색
- 김민정, 김봉환 (2014). 대학생의 진로자기조절, 진로결정효능감, 합리적의사결정 및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7(3), 27-45.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선영 (2000). 4년제 대학 여학생들의 취업직종 선택에 대한 연구 : 여성 전통직과 여성 비전통직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0(1), 41-73.
-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영 (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희, 김봉환 (2010a). 진로역할지향성에 따른 진로장벽 인식과 타협과정 연구. 상담학 연구, 11(4), 1451-1468.
- 김은희, 김봉환 (2010b). 여대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유형에 따른 진로탐색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연구. 진로교육연구, 29(4), 165-183.
- 박미경, 김영숙, 이현림 (2008). 여대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진로결정 수준의 구조적 분석. 진로교육연구, 27(2), 1-26.
- 박미진, 김진희 (2014). 대학생의 의사소통 불안과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6), 2471-2490.
- 박신영, 이동형 (2013). 진로결정수준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 진로교육연구, 32(1), 23-38.
- 박용두, 이기학 (2007). 정서지능, 지각된 진로장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41-1056.
- 박종욱 (2016). 헤어전공대학생의 진로장벽에 따른 성취동기와 진로태도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은령 (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은령 (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개인·심리적 변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15-427.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2), 399-417.
- 손은령, 이순희 (2010). 국내 진로장벽 검사 개발 동향과 후속연구과제. 진로교육연구, 23(3), 31-45.
- 송지준 (2009).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경기: 21세기사.
- 송현심, 홍혜영 (2010). 대학상담: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 신선임, 김수임 (201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결과기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5), 2681-2697.
- 신윤정 (2013). 비관주의와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 및 자율성동기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1), 151-175.
- 신정옥 (2011).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진로장애,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 교육연구, 19(2), 109-141.
- 연규진, 양지웅, 이정선, 장애경, 김정기 (2013).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 이공계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2), 295-316.
- 오은주 (2014).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4), 31-58.
- 우영지 (2008). 여대생의 개인 특성에 기초한 다중역할계획태도 군집유형에 따른 진로장벽지각 수준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태연, 정성원 (2010). 통계조사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유나현, 이기학 (2009). 진로장애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를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0(4), 2241-2255.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 - 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동혁 (2011). 진로의사결정에서의 진로장벽의 역할: 예측변인 또는 조절변인. 상담학연구, 12(1), 59-80.
- 이보현, 두훈, 이은정,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2013). 대학생의 특성불안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 있어 진로의사결정유형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383-1400.
- 이상희 (2005).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2006). 대학생의 성향변인, 진로장애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99-417.
- 이성식, 정철영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4), 83-109.
- 이순영 (2008). 대학생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애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희, 손은령 (2013). 대학생의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4), 2525-2544.
- 이은경 (200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윤 (2014). 고등학생의 학습동기조절전략 사용에 따른 군집유형. 상담학

- 연구, 15(5), 2001-2018.
- 이현림, 김순미, 천미숙, 최숙경 (2008).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 진로스트레스, 진로발달 및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1(4), 59-80.
- 임지선, 장인은 (2015). 여자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확신, 진로준비행동의 구조관계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2(1), 49-67.
- 전미리, 김봉환 (2015). 대학생의 성격 5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445-461.
- 전상진, 정주훈 (2006). 한국 후기 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유형. 한국사회학, 40(6), 261-285.
- 정미예, 조남근 (2011). 사회인지진로이론적 관점에서 본 대학생의 진로만족 모형. 청소년학연구, 18(10), 295-316.
- 정승현, 김금미 (2010). 정서지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2), 739-753.
- 정홍원 (2002). 여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효경 (2009). 여대생의 진로장벽과 자기격려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명실, 최경숙 (2007). 진로상담 :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3), 1085-1099.
- 천석준, 이기학 (2008).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에서의 Holland 흥미 유형별 내적, 맥락적 장벽 요인의 효과모형검증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07-430.

- 최상진, 김양하, 황인숙 (2004). 한국문화에서 청소년이란 무엇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호), 11-28.
- 통계청 (2015). "2014 한국의 사회지표". 2015년 8월 17일,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에서 검색
- 통계청 (2016). "2015 한국의 사회지표". 2016년 5월 18일,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에서 검색
- 한덕웅 (1994). 한국의 사회 문제에 대한 국민의 지각.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 한덕웅, 강혜자(2000). 한국 사회에서 사회문제의 지속과 변화: 1994년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6(2), 15-37.
- 한덕웅, 최훈석 (2006). 한국 사회문제의 변화: 지난 10년간 세 시점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12(1), 103-128.
- 허보연 (2010). 개념도 방법을 통한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탐색.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rnard-Brak, L., Paton, V. O., & Lan, W. Y. (2010). Profiles in self-regulated learning in the online learning environment. *The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in Open and Distributed Learning*, 11(1), 61-80.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Brown, S. D., Krane, N. E. R., Brecheisen, J., Castelino, P., Budisin, I., Miller, M., & Edens, L. (2003). Critical ingredients of career

- choice interventions: More analyses and new hypothes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3), 411-428.
- Cohen & P. Ainley (2000). In the Country of the Blind?: Youth Studies and Cultural Studies in Britain. *Journal of Youth Studies*, 3(1), 79-96.
- Crites, J. O. (1969). *Vocational Psychology*. N.Y.: McGraw-Hill.
- Farmer, H. S. (1976). What inhibits achievement and career motivation in women?. *The Counseling Psychology*, 6(2), 12-15.
- Fitzgerald, L. F. & Crites, J. O. (1980). Toward a career psychology of women: What do we know? What do we need to know.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1), 44-62.
- Gushue, G. V., Clarke, C. P., Pantzer, K. M., Scanlan, K. R. L. (2006). Self-Efficacy, Perceptions of Barriers, Vocational Identity, and the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Latino/a High School Studen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4(4), 307-317.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a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Lent, R. W., Brown, S. D. (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areer of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1), 6-21.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 Lent, R. W., Brown, S. D., Talleyrand, R., McPartland, E. B., Davis, T., Chopra, S. B., Michael S., Alexander, V. Suthakaran & Chai, C. M. (2002). Career choice barriers, supports, and coping strategies: College students' experi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1), 61-72.
- Lopez, F. G. & Ann-Yi, S. (2006).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in Three Racial/Ethnic Group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3(1), 29-46.
- McWhirter, E. H.(1997). Perceived barriers to education and career: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1), 124- 140.
- O'Brien, K. M. & Fassinger, R. E. (1993). A casual model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56-469.
- O'Leary, Virginia E. (1974). Some attitudinal barriers to occupational aspirations in women. *Psychological Bulletin*, 81(11), 809-826.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Yanico, B. & Koschier, M. (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 (3rd rev.)*. Columbus, OH : Marshthon Consulting and press.
- Peake, A. & Harris, K. L. (2002). Young Adults'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The Influence of Gender, Career Traditionality, and Marriage Pla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3), 405-421.

- Swanson J. L. & Tokar, D. M. (1991). Collegestudents' perception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1), 92-106.
- Swanson, J. L., Deniels, K. K. & Tokar, D. M. (1996). Assessing Perceptions of Career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2), 219-244.
- Tak, J., K. & Lee, K. H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ment*, 11(3), 328-345.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ABSTRACT**

## **Differences in Career-related Variables by the Clusters of Career Barriers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Jinhee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dicators of different perspective toward career barriers by examining the sub-group of career barriers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using cluster analysi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405 female college students. Each participants responded to the several scales completely after reading with cautions and confidentiality on the first page of questionnaire. All scales used in questionnaire were as followed: Career Barriers Inventory for female college students(CBI: Career Barriers Inventory), CDMSE-SF(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S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only 362 subjects were used in the analysis which was counted as appropriate for the study. The data was analyzed by IBM SPSS Statistics 21.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by utilizing hierarchical and K-means cluster analysis, total sample were divided into 5 types. Cluster 1 named as 'Career Indecision-Perceiving Social restriction group' showed career indecision, Lack of Networking and Disadvantage of Economic condition. Cluster 2 'Career Indecision-unperceiving Sexual restrictions group', was characterized career indecision but unperceiving the multiple social role. Cluster 3 named 'low-perceiving group' showed low score in every aspect of Career barriers. On the other hand, Cluster 4 named as 'High-perceiving group' showed high score of every aspect. Cluster 5 named as 'Career decision-Perceiving Sexual restrictions' because they perceived more conflict of the multiple role socially required. Second, The major satisfaction and Type of school(a four-year-course college, junior college, et cetera)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y clusters of career barriers. Third, Through one-way ANOVA, it turned out that ther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ree psychological career factors,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areer Barrier,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career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부 록

부록 1. 설문지 표지 및 동의서

부록 2. 여대생 대상 진로장벽검사

(CDI: Career Barriers Inventory)

부록 3. 진로결정검사

(CDS: Career Decision Scale)

부록 4. CDMSE단축형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SF)

부록 5. 진로준비행동척도

부록 6.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 부록1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현재 석사학위 논문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여대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이 어떤 하위유형으로 나누어지는지 알아보는 연구입니다.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고 답하여 주십시오. 문항 작성에는 약 1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예: 주민등록번호, 학번)는 수집하지 않을 것이며, 답례품을 드리기 위하여 연락처를 동의하에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모든 응답과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연구종료 한 달 후에 폐기됩니다.

연구에 포함된 문항들에는 별도의 정답이나 오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귀하의 평소 생각과 느낌대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귀중한 연구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제시되는 문항들에 응답하시되,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인터넷 창을 종료하여 설문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설문에 기꺼이 응해 주신다면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이메일 하십시오.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과정 최 진희(cm4624@naver.com)  
지도교수 이 정윤

*"1)위의 기술된 내용을 읽어보았으며, 2)여자 대학생이고(남녀공학, 여자대학 포함), 3)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경우 다음페이지로 넘어가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2

1. 아래에 제시된 문항들은 진로를 결정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 당신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원인들입니다. 아래의 나열된 문항들을 읽고 해당 문항들이 나의 진로경험을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것이라 예상되는 정도를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방해 하지 않을 것이 다							매 우 방 해 할 것 이 다
			1	2	3	4	5	6	
1	직장생활을 잘 해나갈 자신이 없다.	1	2	3	4	5	6	7	
2	나의 가사책임과 직장에서의 직무책임을 조화롭게 하기가 힘들다.	1	2	3	4	5	6	7	
3	직장에서 나를 이끌어 줄 만한 선배나 동문을 모른다.	1	2	3	4	5	6	7	
4	국내 경제상황의 변화 때문에 내 진로를 계획하기 힘들다.	1	2	3	4	5	6	7	
5	내 직업 선택을 주변사람들(부모, 친구, 친지 등)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1	2	3	4	5	6	7	
6	직업을 통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6	7	
7	나의 신체적 조건이나 외모로 인해 취업 시 차별을 받는다.	1	2	3	4	5	6	7	
8	결혼 및 출산계획과 진로계획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6	7	
9	나 자신에 대해 매사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1	2	3	4	5	6	7	
10	자녀가 있거나,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다.	1	2	3	4	5	6	7	

11	내가 원하는 직업이 나의 성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자신감을 잃는다.	1	2	3	4	5	6	7
12	직장에서 필요한 능력에 비해 내가 너무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	1	2	3	4	5	6	7
13	어떻게 취직해야 할지 방법을 모른다.	1	2	3	4	5	6	7
14	특별한 인맥이나 배경이 없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성공할 것 같지 않다.	1	2	3	4	5	6	7
15	상사가 나의 성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	1	2	3	4	5	6	7
16	어린 자녀를 두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4	5	6	7
17	직장생활이 결국에는 실패로 끝날까 봐 두렵다.	1	2	3	4	5	6	7
18	내 성격 특성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1	2	3	4	5	6	7
19	직장생활을 유지할 만한 체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1	2	3	4	5	6	7
20	직업의 종류와 그 전망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1	2	3	4	5	6	7
21	가정에서의 스트레스가 내 직장생활에 영향을 준다.	1	2	3	4	5	6	7
22	내가 원하는 직업의 보수가 낮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아 염려된다.	1	2	3	4	5	6	7
23	나는 위계적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힘들다.	1	2	3	4	5	6	7
24	부모님이나 주변사람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높아 부담스럽다.	1	2	3	4	5	6	7
25	자녀로 인해 내 직장생활이 방해 받는다.	1	2	3	4	5	6	7

26	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특정 직업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27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내가 취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1	2	3	4	5	6	7
28	내 직업선택을 애인이나 배우자가 지지해주지 않는다.	1	2	3	4	5	6	7
29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예: 의사표현력, 지도력, 의사결정력) 등이 부족하다.	1	2	3	4	5	6	7
30	내가 원하는 직장의 보수가 너무 낮다.	1	2	3	4	5	6	7
31	자녀로 인해 직장에서 어렵게 얻은 기반을 유지하기 힘들다.	1	2	3	4	5	6	7
32	직장생활을 잘 해나 갈만한 끈기가 없다.	1	2	3	4	5	6	7
33	나의 진로 목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진로 계획이 계속 바뀐다.	1	2	3	4	5	6	7
34	직장에서 승진해 나가는 방법을 모른다.	1	2	3	4	5	6	7
35	배우자(애인)의 직장이 바뀌어서 내 직장이나 직무를 바꾸어야 한다.	1	2	3	4	5	6	7
36	연령 때문에 취업이나 직무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	1	2	3	4	5	6	7
37	직장에서 대인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6	7
38	직장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격증이 없다.	1	2	3	4	5	6	7
39	남성위주의 조직사회에서 생활해 나가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1	2	3	4	5	6	7

40	내가 기혼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1	2	3	4	5	6	7
41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는 승진 기회가 적어 보인다.	1	2	3	4	5	6	7
42	나의 모든 역할들(부모, 배우자, 직업인 등)을 잘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다.	1	2	3	4	5	6	7
43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 승진,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1	2	3	4	5	6	7
44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기 힘들다.	1	2	3	4	5	6	7
45	배우자가 내 진로 목표보다 자녀양육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46	내 성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 때문에 직장에서 처신하기가 곤란하다.	1	2	3	4	5	6	7
47	직장분위기(상사 및 직장동료)가 여성의 능력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	1	2	3	4	5	6	7
48	직장생활을 잘 해나가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하다.	1	2	3	4	5	6	7
49	내 연고지나 학벌로 인해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있다.	1	2	3	4	5	6	7
50	내가 원하는 직업과 내 대학 전공이 다르다.	1	2	3	4	5	6	7
51	전통적으로 내 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인식된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6	7
52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6	7
53	부모 역할과 직장인 역할을 함께 수행해 나가기가 어렵다.	1	2	3	4	5	6	7
54	직장상사나 동료로부터 성적으로 희롱 당한다.	1	2	3	4	5	6	7

55	직무분담에 있어서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1	2	3	4	5	6	7
56	내가 원하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	1	2	3	4	5	6	7
57	남성들이 주로 하는 분야의 직업(예: 토목 기사)을 원하기 때문에 취업이나 직장생활이 힘들다.	1	2	3	4	5	6	7

### 부록3

2. 아래에 제시된 검사는 당신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아래에 나열된 문항을 읽고 한 문항들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다소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진로를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를 알고 있다.	1	2	3	4
2	나는 내가 선택한 전공(계열) 혹은 직업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며,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를 알고 있다.	1	2	3	4
3	나에게 재능이 있고, 기회도 주어진다면 나는 ( )이/가 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나는 다른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1	2	3	4
4	나는 똑같이 호감이 가는 직업들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1	2	3	4
5	나는 결국 직업을 가져야 하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직업에도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	1	2	3	4
6	나는 ( )이/가 되고 싶지만,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당장 진로 결정(취업/진학)이 어렵다. 내 자신과 그들의 생각이 일치되는 직업(학과)을 발견하고 싶다.	1	2	3	4
7	지금까지 나는 진로 선택에 관해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내 스스로 결정해 본 경험이 별로 없고, 또 당장 진로 결정을 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1	2	3	4
8	진로 선택(진학/취업)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당분간 결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싶다.	1	2	3	4

9	나는 내가 어떤 진로를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다른 진로를 모색하려고 한다.	1	2	3	4
10	나의 진로 선택에 확신을 갖고 싶지만 내가 아는 진로도 나에게 이상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1	2	3	4
11	진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 버리고 싶다. 내가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 지 알려줄 수 있는 검사라도 받고 싶다.	1	2	3	4
12	나의 전공 분야가 내게 만족할 만한 진로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1	2	3	4
13	나는 나의 적성과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로결정을 당장 할 수 없다.	1	2	3	4
14	나는 나의 관심분야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 흥미를 끄는 분야가 몇 가지 있지만, 나의 진로 가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1	2	3	4
15	나는 많은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진로를 선택 하든지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하나의 직업을 찾기가 힘들다.	1	2	3	4
16	나는 진로결정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확실하지 않다. 내가 선택한 ( )이/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1	2	3	4
17	진로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직업들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1	2	3	4
18	나는 어떤 직업 혹은 대학을 선택해야 할 지 알고 있지만, 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1	2	3	4

부록4

3. 아래에 제시된 문항들은 당신이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아래에 나열된 문항들을 읽고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1	2	3	4	5
2	여러 가지 전공들이 나열되어 있는 목록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5
3	앞으로 5년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1	2	3	4	5
4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학업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들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1	2	3	4	5
5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1	2	3	4	5
6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 목록들 중에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5
7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는데 어떤 교과과정(교육과정)이 요구되는지 알 수 있다.	1	2	3	4	5
8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한 전공이나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2	3	4	5
9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	2	3	4	5
10	향후 10년간의 직업 고용 경향을 알 수 있다.	1	2	3	4	5
11	내가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1	2	3	4	5
12	나는 나의 이력서를 멋지게 쓸 수 있다.	1	2	3	4	5

13	처음 선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	1	2	3	4	5
14	직업 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 나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2	3	4	5
15	생각하고 있는 직업의 평균 수입과 연봉을 알아볼 수 있다.	1	2	3	4	5
16	진로 결정을 하고 나면, 그것이 잘 한 것인지 못 한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1	2	3	4	5
17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바꿀 수 있다.	1	2	3	4	5
18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할 수 있고, 어떤 것이 어려운지 구분해 낼 수 있다.	1	2	3	4	5
19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1	2	3	4	5
20	관심 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나는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5
21	나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1	2	3	4	5
22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	2	3	4	5
23	대학 혹은 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1	2	3	4	5
24	취업 면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들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25	처음 선택한 진로나 분야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전공이나 진로의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2	3	4	5

부록5

4. 아래에 제시된 문항들은 당신이 진로를 위해서 실제적인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들입니다. 아래에 나열된 문항들을 읽고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는 편이다	다소 그런 편이다	아주 그렇다
1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1	2	3	4
2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1	2	3	4
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1	2	3	4
4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팸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보았다.	1	2	3	4
5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훈련기관 혹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나 팸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보았다.	1	2	3	4
6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거나 혹은 그 같은 방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1	2	3	4
7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TV 프로그램, 전시회, 설명회 등을 시청하거나 참관한 적이 있다.	1	2	3	4
8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1	2	3	4

9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1	2	3	4
10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연구소나 그 밖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1	2	3	4
11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1	2	3	4
12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 준비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1	2	3	4
13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재,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1	2	3	4
14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학원 등에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1	2	3	4
15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취업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하였거나 혹은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16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부록6

다음은 인적사항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남 ②여
  2. 나이: \_\_\_\_\_세
  - 3-1. 학교유형1: ①남녀공학 ②여자대학 ③기타
  - 3-2. 학교유형2: ①4년제 ②전문대 ③기타
  4. 학교 소재지: ①수도권 ②비수도권 ③기타
  5. 학 년: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④4학년
  6. 전 공 계 열: ①인문사회계열 ②자연이공계열 ③상경계열  
④법학계열 ⑤생활과학계열 ⑥사범계열  
⑦예체능계열 ⑧의료간호계열  
⑨기타: (\_\_\_\_\_)
  7. 평균학점 수준: (□4.5 / □4.3 / □4.0)만점에 (\_\_\_\_\_)점
  8. 전공만족도: ①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②다소 만족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다소 만족한다. ⑤매우 만족한다.
- ※ 답례품 받을 연락처  
(\_\_\_\_\_)

◆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